

광양시, 이번 주말 망덕포구와 배알도에서 K-문화의 향연

이번 주말 망덕포구와 배알도 일대가 문화와 예술, 미식이 어우러진 풍성한 K-문화의 무대로 변신한다.

광양시는 오는 11월 8일 운동주 시정원에서 '제5회 운동주를 노래하다'가, 9일에는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제4회 광양배알도 수변축제'가 각각 개최된다고 밝혔다.

망덕포구는 우리말과 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자칫 묻혀버릴 뻔했던 운동주의 유희 유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중하게 지켜낸 한국 문학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정병욱 가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운동주 시정원'에는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바람이 불어' 등 유교 시집에 수록된 31편의 시가 모두 시비로 새겨져 있다.

특히 '바람이 불어'는 2023년 11월,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비킹엄궁 국빈만찬에서 직접 영어로 낭송하며 운동주의 시가 시대의 국경을 넘어 감동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8일 오후 3시, 운동주 시정원에서는 '망덕포구로 가을 마중 갑시다'를 주제로

8일, '운동주 시정원'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운동주의 시 노래하고
9일, 배알도 수변공원 축제서 케데헌 속 김밥 맛보며 가을 정취 만끽



로 운동주의 시를 음악과 낭송으로 되살리는 '제5회 운동주를 노래하다'가 열린다.

이번 문학 콘서트는 피아노, 시 낭송, 성악이 어우러진 예술 무대로, 문학

과 음악이 함께 흐르는 감성의 순간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망덕포구를 걸어 별헤는다리를 건너면 가을바람과 역사가 어우러진 배알도 섬 정원이 방문객을 맞고, 해맞이다리를 건너면 물결이 칠랑이는 배알도 수변공원에 닿는다.

배알도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는 9일 오후 1시부터 광양의 자연과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제4회 광양배알도 수변

축제'가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 광양김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낭만음악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어린이 댄스킹 선발대회 ▲숲밭즐거움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데헌' 속 김밥을 무료로 맛보며, 인류 최초로 김을 양식한 광양의 역사성과 장소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가을 정취가 짙어가는 이번 주말, 운동주의 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망덕포구와 축제의 열기로 들뜬 배알도에서 문화와 예술, 미식이 어우러진 광양의 감성과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인근의 광양김시식지와 진월 조선수군 선소기념관 등도 함께 둘러보신다면 한층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극단청자 '대구와 마랑사이' 악극 공연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오후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악극 '대구와 마랑사이'는 2025년 전남문화재단 공연장 협력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초연 작품으로, 『극단청자』의 임재필 대표가 작품과 연출을 맡았다. 이번 공연은 2025년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와 7시, 총 2회에 걸쳐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극단청자』의 제12회 정기 공연이기도 하다.

작품의 무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곧 다가올 마랑미향영화제 홍보 공연단을 꾸림 마랑미향 대구면민들이 공연 연습과 홍보활동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대구면에 찾아온 서울 파고다 악극단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았다.

임재필 대표는 "이번 공연은 약 75분간 진행되며, 영화 '꼬마신랑'의 주연배우로 잘 알려진 김경호 배우가 특별출연한다"며, "올해 마지막 정기공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악극 공연 또한 지역 극단과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문화 창조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1만 원이며, 예매는 061-433-1101 또는 010-3544-3328을 통해 가능하다.

강진/손경설 기자

우리 음악과 춤의 절정! 그들이 선 무대는 끝:판이 된다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11월 8일 기획공연 명인전 <끝:판> 개최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기획공연 명인전 <끝:판>을 선보인다. 명인전은 매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진행되는 기획공연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인, 명창, 명무를 초청하여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이다.

이번 공연은 무용과 아쟁산조, 판소리 춘향가, 고성오광대, 옛타령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총 5명의 명인이 출연하여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먼저 전 국립국악원 안무자이자 국가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와 승전무의 이수자인 최경자 명무가 순원왕후의 사순을 경축하여 열린 진작에서 초연된 춤인 <춘앵전>으로 무대를 연다.

이어서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1979)과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1983), 제22회 동리 국악 대상과 제28회 방일영국악상을 받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김일구 명인의 <김일구류 아쟁산조>를 만나볼 수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200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예술감독 역임 한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심청가 예능보유자이자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인 송재영 명창의 춘향가 중 <신연맞이> 대목으로 무대가 이어지고, 전라남도무형유산 조도맞배노래 예능보유자이자 진도군향토문화유산 진도옛타령 예능보유자인 조오환 명인의 <비는 소리, 장타령, 뱀타령, 만년필타령, 옛타령>을 만날 수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가을로, 나주로, 예술로... 예술위, 참여형 축제 '예술로 소풍-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ARKO)가 다가오는 8일 오후 1~4시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에서 2025 나주 '예술로 소풍-가을' 행사를 개최한다.

'예술로 소풍'은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와 아르코(ARKO)가 이전한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봄과 가을에 진행되는 어린이 예술 축제이다.

11월 나주에서 개최되는 2025 나주 '예술로 소풍-가을'은 공연, 체험, 전시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참여형 예술 축제로, 어린이와 동반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예술 나들이의 장으로 마련됐다.

어린이·가족 위한 예술 축제... 공연·예술 체험·전시 등

8일 나주 예술위 본관서... 무료·사전 신청시 경품도

공연 프로그램은 ▲참여형 마술극 '킴브라더스의 매직박스' ▲연극 '신장개업 인어목욕탕' ▲탈춤 '사자와 함께 춤을' ▲클래시 연주 '가을소풍 스케치' 등 총 4개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아르코(ARKO) 본관 앞마당과 실내 공간을 활용해 관람객이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보다 다채로운 공연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신문지 공룡 '벨로시랩터의 탄생' ▲조롱박이 들려주는 이솝우화 '토끼와 자라' ▲한글 서예쓰기 체험 ▲예술 창의 놀이터 등 오감으로 경

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운영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구성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 여부를 응답한 관람객에게는 주춤를 통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아르코 관계자는 "2025 나주 '예술로 소풍-가을'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도록 기획했다"며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아르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보다나인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